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에너지정보통계센터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33 / 2007.10.17

□ 국제유가 WTI 사상 최초 $86 돌파

○ 15일 미국 NYMEX 11월 인도분 WTI는 지난 주 종가보다 $2.44 오른 배럴당 $86.13을 기록하였음.

- 이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$85 선을 돌파한 것이며 '83년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5일 연속 상승했음.

○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상황과 달러화의 약세가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증폭하였고 유가의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○ 또한 터키의 쿠르드 반군 공격과 비OPEC의 원유 생산 감소를 전망한 OPEC의 보고서 발표 등이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함.

- 터키정부는 의회에 쿠르드 반군 공격을 위해 북부 이라크(세계 3대 유전지대)에 진격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.

- OPEC는 비OPEC의 4분기 생산은 예상보다 일일 11만 배럴이 부족하며 4분기 원유 수요는 작년보다 일일 1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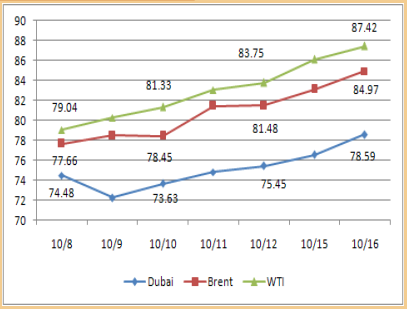
(Reuters, 2007.10.15)

NEWS
- 국제유가 WTI 사상 최초 $86 돌파
- 페루, SK에 $20억 투자제안
- 베네수엘라 원유 확인매장량 증가
- 일본 경제산업성, 임밸런스 요금 체계 개정 논의
- 쿠웨이트 첫 천연가스 생산시작
- Lukoil, 가스 30억㎥ 가스프롬에 판매
- E.ON, GDF Suez와 주식교환 협상
- EU 집행위원회, 에너지부문 장기계약 제재

ANALYSIS
- 세계 석유시장의 OPEC 의존도 확대 가능성
- 석유수출수익에 따른 걸프국가의 경제성장
- 도미니카정부의 전력개편 현황
- 발전차액지원제도(feed-in tariffs)의 문제점

REPORT
-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10월호)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ASIA & AMERICA

□ 페루, SK에 $20억 투자제안

○ 페루 대통령은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SK 회장과의 면담에서 $20억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SK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.

- 페루 정부는 Camisea 가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LNG 수출을 위해 '10년 완공을 목표로 $4억 투자를 요하는 Pampa Melchorita LNG 설비 건설 프로젝트와 약 $10억 이상이 투자될 메탄가스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음.

○ 현재 SK는 Camisea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약 $9억을 투자하였으며 Hunt Oil, Sonatrach, Suez 등과 함께 Camisea 가스관 공사를 위한 TGP를 합작 설립하였음.

- 이외에도 Hunt Oil, Repsol-YPF와 Peru LNG 협회를 구성하여 Pampa Melchorita의 LNG 설비 건설에 참여함.

- SK는 올해 페루 유전에서 $1억5,000만의 수익을 예상하며 '10년에는 생산량이 4억5,000만 배럴로 증가하여 $4억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함.

(Prensa Latina, 2007.10.9)

□ 베네수엘라 원유 확인매장량 증가

○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확인매장량이 7월 880억 배럴에서 124억 증가한 1,000억 배럴로 확인되었다고 함.

-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하면 Orinoco 지역에서 124억 배럴이 추가 확인되어 총 원유 매장량은 1,000억 배럴로 증가하였음.

- 현재 유전 벨트에서 발견된 원유는 259억 배럴이며 그 외에도 천연가스 6조4,000억 입방피트가 확인되었다고 함.

○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Orinoco 유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, 이란, 인도 등과 확인 작업을 거쳐 총 매장량 3,160억 배럴을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함.

(AFP, 2007.10.7), (El Universal, 2007.10.8)

□ 일본 경제산업성, 임밸런스 요금 체계 개정논의

○ 자원에너지청 전기사업분과회 및 제도개혁 실무그룹이 특정규모전기사업자(PPS)와 발전사업자의 임밸런스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기사업제도개혁을 검토 중임.

- 현재 소폭의 임밸런스 발생 시의 요금은 전체 전원에 대한 평균단가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음.
- 전력계통협의회(ESCJ) 규정으로 전력회사의 계통운용부문은 3~5%의 운전예비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에너지청은 예비력이용을 위한 비용에서 변동범위내의 요금산출 방식으로의 변경에 주목하게 됨.
- 자원에너지청의 임밸런스 요금체계 검토에 의한 요금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전원 트러블발생시의 임밸런스 요금부담이 가벼워지므로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개혁이 될 것임.

○ 자원에너지청은 전력회사의 임밸런스 비용을 투명하게 하고 전력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의 형평성 향상을 제도개혁의 목표로 하고 있음.

(日本電氣新聞, 2007.10.10)

EUROPE, MIDDLE EAST & AFRICA

□ 쿠웨이트 첫 천연가스 생산시작

○ 쿠웨이트석유공사는 올해 12월에 첫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힘.

- 첫 가스생산은 일일 1억 7,500만 입방피트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며 '15년까지 일일 10억 입방피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동 생산으로 쿠웨이트의 가스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쿠웨이트는 '06년 3월 북부지역, 특히 사브리야와 움무 나까 지역에서 35

조 입방피트의 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음.

- 두 가스전의 유정에서 천연가스는 일일 1,600만~2,700만 입방피트 생산이 가능하고, 수반가스는 일일 2,200~4,000 배럴 생산이 가능함.

○ 쿠웨이트의 천연가스는 '87년 가스를 발견하기 위해 5개 유정 시굴을 시작으로 '95년에 가스탐사를 위한 첫 지역선정이 이루어졌음.

(Al-Jazeera, 2007.10.8)

□ Lukoil, 가스 30억㎥ 가스프롬에 판매

○ 러시아 2위 석유업체인 Lukoil이 내년에 러시아 국영가스업체인 가스프롬에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30억㎥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.

- Lukoil 해외부문 대변인은 Lukoil이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하우작-샤디-칸딤-쿤그라드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가스 전체를 가스프롬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밝힘.
- Lukoil은 '12년까지 매년 우즈베키스탄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120억㎥을 가스프롬과 함께 중국 업체에도 판매할 계획임.

○ 러시아에서 해외자산이 가장 많은 Lukoil은 러시아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해 중앙아시아와 베네수엘라,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.

(Bloomberg, 2007.10.9)

□ E.ON, GDF Suez와 주식교환 협상

○ EU집행위원회는 지난 '06년 10월, 벨기에 에너지시장 개방을 위해 GDF와의 합병 전에 자회사인 Distrigaz를 분리할 것을 Suez에 촉구하였고, Suez는 주식교환 형태의 양도를 희망함.

- 프랑스 EDF, 독일 E.ON과 RWE, 이탈리아 Enel, 스페인 Iberdola가 동 기업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혔고,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EDF 및 가스프롬의 매입 가능성은 전혀 없음.
- GDF는 E.ON의 가스공급업체인 Gasag의 지분을 32% 보유하고 있는데, 동 기업에 대한 E.ON의 지분 37%를 양도받기를 희망하고 있음.

- E.ON과 GDF Suez는 주식 맞교환 협상을 했고, E.ON이 Disgrigaz를 인수하는 대신 GDF Suez의 Gasag 지분보유를 확대하는 식의 맞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.

○ E.ON이 Distrigaz를 매입할 경우, E.ON은 벨기에의 주요 전력공급업체가 될 것임.

(La Tribune, 2007.10.7)

□ EU 집행위원회, 에너지부문 장기계약 제재

○ EU 집행위원회는 타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벨기에 Distrigaz가 장기계약을 이유로 대량 공급받던 가스량을 제한함.

- 또한 에너지부문의 다른 유럽 공급업체들도 반독점 조사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.
-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기업처럼 소비자들과 장기계약을 맺어 시장개방을 방해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며, 그 예로 지난 7월에는 EDF의 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.
- 벨기에의 경우 Distrigaz가 시장의 80%를 장악하고 있는데 동 기업이 가스소매업자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있어서 시장경쟁에 장애가 되고 있음.

○ Distrigaz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가스공급량을 줄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소매사업자와 가스공급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밝힘.

- 새로 건설될 발전회사를 제외한 대규모 가스구입자와의 계약은 최대 5년이며, 지금까지 공급하던 가스량의 70%만을 시장에 공급할 전망이며, 이미 소비자와 체결한 장기계약은 단기계약으로 간주됨.
- EU 집행위원회는 Distrigaz가 동 방침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'10년 말까지 감독하여 만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총 매출의 10%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.

(Reuters, 2007.10.11)

1. 세계 석유시장의 OPEC 의존도 확대 가능성

□ 개요

○ 세계 주요 석유 메이저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증가하면서 비OPEC의 원유생산이 정점에 달했다는 논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됨.

- 일각에서는 석유기업의 자사주 회수 배경을 원유생산 확대 어려움으로 현재와 같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.

○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세계 석유시장의 OPEC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○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각각 $300억과 $1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함.

- 이러한 석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최근 석유업계 호황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유전개발 투자가 고착상태에 직면했음을 암시하기도 함.

- Weeden & Co.의 애널리스트는 세계 주요 석유 메이저들은 '11년 이후 원유 증산에 실패할 것이며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함.

- 이는 신규 유전개발과 원유생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가가 $80대 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석유메이저들은 상류부문 투자를 점차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임.

  ※ 현재 신규 유전개발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원유가격 약 $45/bbl 선으로 추정되고 있음.

- 실례로 엑슨모빌은 신규 유전탐사와 유전플랜트 증설에 올해 $210억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자사주 매입 규모에 못 미침.

○ 향후 세계 석유시장의 OPEC 의존 증가 가능성 제기

- 이 애널리스트는 세계 석유 메이저들의 신규 유전개발 투자 부진으로

비 OPEC에서의 원유생산은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이며 특히 멕시코와 러시아, 북해의 원유생산은 이미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중국은 '10년경에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함.

- 이에 따라 석유소비국의 OPEC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 비 OPEC의 증산능력 부족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PEC은 이를 보충해줄 정도의 증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.

□ 시사점

○ 기록적인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유전탐사 및 개발에 대한 비용과 위험 증가로 석유 메이저기업에 의한 신규 유전투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급 불안에 따른 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○ OPEC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경우 대부분의 OPEC 회원국과 석유 소비국 간의 외교관계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.

(Bloomberg, 2007.10.3)

2. 석유수출수익에 따른 걸프국가의 경제성장

□ 개요

○ 골드만 삭스는 최근 걸프국가의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걸프국가들은 경제다양화와 개방, 시장개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힘.

□ 세부내용

○ 동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국가들의 경제는 '30년까지 $5조 이상의 석유수입증가로 인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○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석유 및 가스 판매수입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걸프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.

- 이 지역의 '06년 경제성장률은 약 7%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'90년~'02년 평균 3.5%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고유가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경제성장은 지속될 전망임.

○ 모든 걸프국가들은 많은 석유,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에너지생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.

- '05년 기준 걸프국가의 확인매장량은 4,840억 배럴이고 천연가스는 41조 입방미터로 전세계 석유의 40.3%, 가스는 23%를 차지하며, 걸프지역은 매년 약 67억 배럴의 석유와 1,96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음.
- 걸프국가의 세계 석유생산 비중은 22.8%, 가스 7.1%인데 이는 최소비율이며 '05~'30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따라 비중은 38%로 증가할 전망임.
- 또한 걸프국가 천연가스생산은 동기간 동안 약 200%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가스공급의 약 46%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.
- 하지만 걸프지역의 몇몇 거대 유전은 매년 12%의 비율로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음.

○ IEA에 따르면 걸프국가는 '20년까지 석유, 가스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$6,500억 상당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- 걸프국가들은 안정적인 세계경제를 위하여 에너지원 수급안정과 에너지생산 증가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첨단 기술이용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○ 걸프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역내 정치안정과 경제개혁을 위한

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함.

- 아랍-이스라엘 문제와 이라크의 불안정한 안보상황, 이란의 대외관계 문제, 종교적 이념갈등이 바로 이 지역에 만연한 불안정의 요소임.

○ 보다 포괄적인 경제개방을 한다면 걸프국가들은 보건, 교육 분야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.

□ 시사점

○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풍부한 투자재원을 보유한 걸프국가들은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음.

- 걸프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이 지역의 자원획득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경제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(www.argaam.com, 2007.10.10)

3. 도미니카정부의 전력개편 현황

□ 개요

○ 도미니카 정부는 전력부문 개편을 통해 20년간의 에너지부족 사태를 끝내고 전력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.

○ 현재 IMF의 전력부문 보조금 만료 압박 하에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저리 차관을 고려하고 있으며, 대통령은 보조금 만료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정치불안감을 확산시켜 내년 5월 재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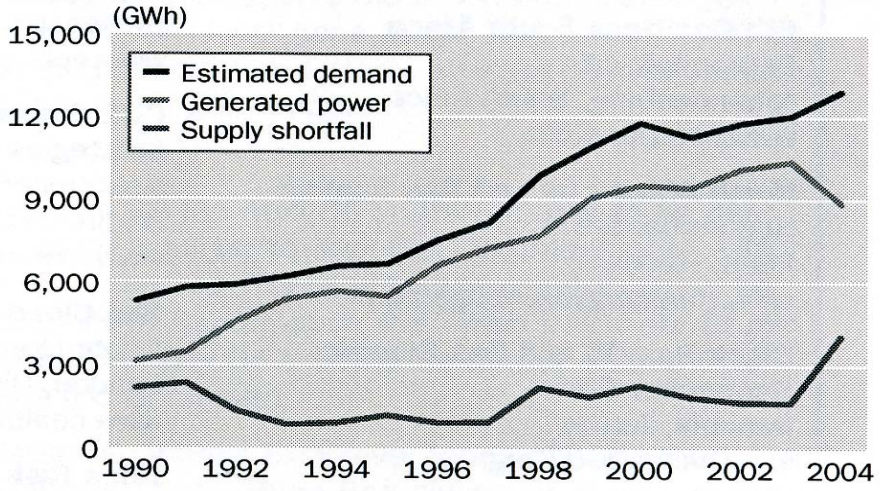
○ 현재 도미니카의 발전설비는 2,500MW로 약 9백만 명에게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능력은 1,700MW로 수요 2,100MW 보다 적음.

○ 도미니카 총 전력의 75%를 생산하고 있는 민자 발전회사들은 정부의 전력부문 개편에 있어 도미니카 전력공사(CDE)와의 전력수급계약이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면 개편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임.

- '99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하면 전력공사는 민자 발전회사와의 계약은 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만약 발전량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도 요금을 지불함.
- 대부분의 계약이 '16년 만료되나 도미니카 정부는 모든 계약서의 만료기한을 '10년으로 앞당겨 국제 입찰을 통한 재계약을 원함.

○ '99년 도미니카 대통령은 CDE를 발전, 송배전, 판매의 3부분으로 나누어 부분적 민영화를 실행하였고, 수력발전소와 송배전부문은 계속 정부가 보유하나 발전과 판매는 지역과 민간투자가들에게 매각함.

도미니카의 전력수급 추이



- 이로 인하여 AES와 Union Fenosa는 송배전망을, Gener of Chile와 Coastal, Enron, Seaboard는 발전소를 매입하며 총 $6억5,000만을 투자하여 지분의 50%를 보유하며 경영권을 획득함.

○ 정부는 재무협정을 통해 지난해보다 $7,000만 더 많은 약 $6억을 보조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, 동 보조금은 송전비용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CDE의 적자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임.

- CDE는 $0.136/kWh에 전력을 구매하여 $0.097/kWh에 판매함으로써

매달 약 $350만의 적자를 보았음.

- 도미니카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나 IMF와 같은 금융기관은 폐지를 원하므로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PetroCaribe를 통해 저리 차관을 모색 중임.

○ 또한 정부는 다양한 투자를 통하여 국내 발전설비를 약 1,200MW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.

- CDE는 6년간 수력발전 확대를 위해 총 $2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'12~'15년간 $1억4,000만을 투자하여 약 762MW를 증가시킬 예정임.
- 또한 원활한 송전을 위해 남부에서 북부지방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독일 은행으로부터 약 $1억6,680만의 차관을 제공받을 예정임.

□ 시사점

○ 전력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미니카 정부의 전력정책은 구조개편을 통한 신규 투자의 확대 및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음.

- 그러나 내년 5월의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성공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원개발, 송배전망 확충이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임.

(Energy Economist, 2007.9)

4. 발전차액지원제도(feed-in tariffs)의 문제점

□ 개요

○ '90년대 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발전차액지원제도(feed-in tariffs) 도입 이래,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을 보상해 주는 등 feed-in tariffs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 등의 자립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
□ 세부내용

○ 독일은 feed-in tariffs의 개척자이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약 40개국이 feed-in tariffs를 채택하고 있음.

○ feed-in tariffs를 통한 초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

- '90년 초 독일정부는 환경오염이 많은 화력 발전소를 인수한 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StrEG 법안을 도입하여, 전력회사들이 전력 소매가격의 65~85%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음.

- StrEG의 도입 이후, 독일의 처음 10년간 주요 신재생에너지는 풍력이었고 설비용량은 약 6,000MW에 이름.

- '00년 EEG법안의 도입 이후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성장률은 연평균 12%를 보였고 '05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총 전력소비의 10%에 해당하는 61.6TWh이며 그중 절반은 풍력이 차지함.

○ feed-in tariffs의 과잉현상

- 성숙단계에 들어선 풍력산업에 계속 feed-in tariffs를 적용할 것인가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, IEA에 따르면 독일의 풍력산업체에 대해서는 feed-in tariffs를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음.

-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감소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생산기업에 계속 보상되고 있음.

○ 태양에너지의 특별한 경우

-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중 가장 고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발전(photovoltaic, PV)으로, PV는 feed-in tariffs를 통해서만 기술 진보를 할 수 있음.

- EU의 태양광발전협회인 Epia는 PV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feed-in tariffs를 적용하여 생산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그러나 PV는 feed-in tariffs의 총 지출 중 20%를 차지하지만 PV의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5%이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EA는 PV의 투자를 feed-in tariffs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○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

- IEA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선정하였음.
- 또한, IEA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시장경쟁을 할 시기임을 강조함.
- feed-in tariff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생산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

□ 시사점

○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제도를 국내 에너지시장에 도입함에 있어 독일 등 유럽의 지원정책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(Energy Economist, 2007.9)

1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(10월호)

□ 개요

○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10월 10일 발표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○ 세계 석유수급 전망

- '07년 4/4분기 석유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180만 b/d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이는 중국, 브라질, 미국, 중동 지역의 소비강세로 인한 것임.
- '08년 석유소비는 140만 b/d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9월 예측치보다 14만 b/d가 감소한 수치이며, 고유가 및 OECD의 소비 감소세 전망에 따른 것임.

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/d)

구분	2006	2007	2008
수요(A)	84.66	85.78	87.15
OPEC 공급(B)*	35.31	34.86	36.34
비OPEC 공급(C)	49.27	49.86	50.72
공급(B+C)	84.58	84.72	87.06
재고변동**	-0.08	-1.06	-0.08

*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, OPEC 12개국 공급량
**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- EIA는 OPEC이 11월부터 50만 b/d 증산조치를 발표했음에도 현재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EIA는 '08년 OPEC의 평균 생산량은 3,150만 b/d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는 '07년 수준에서 1.2% 상승한 것임.
- 만약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OPEC는 '08년에 추가

적 증산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.

- 그럼에도 '08년 세계잉여생산능력은 2백만~3백만 b/d수준으로 비교적 낮을 것임.
- 비OPEC의 '08년 석유 생산은 86만 b/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, 이는 주로 브라질, 미국, 러시아, 캐나다, 수단에서의 증산에 따른 것임.
- 이 증가분은 멕시코, 영국, 노르웨이, 이집트의 생산량 감소를 상쇄시키는 수준이 될 것임.
-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은 '07년 4/4분기에 48만 b/d 증가할 전망임.

○ 유가 전망

- 국제 평균유가는(WTI 기준) '07년과 '08년에 각각 $68.84/bbl, $73.50/bbl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'09월 예측치보다 각각 $1.87/bbl, $1.33/bbl 상승한 것임.
- 세계 석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유가 상승 추세는 '0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○ 미국 석유수급 전망

- '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0.5% 증가한 2,080만 b/d, '08년에는 1.0% 증가하여 2,10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의 '07년 석유생산은 전년보다 0.7% 증가한 510만 b/d가 될 전망임.
- '07년 말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 원유생산이 개시됨에 따라, '08년 원유 생산량은 2.31% 증가하여 53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○ 천연가스 수급 전망

- '07년 4/4분기 난방도일은 작년 동기대비 10% 증가할 전망에 따라 가정부문 소비는 9.5% 증가한 14.59 bcf/d, 상업부문 천연가스 소비는 6.9% 증가한 9.03 bcf/d를 기록할 전망임.
- '07년 총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4.6% 증가한 62.26 bcf/d, '08년에는 0.4% 증가한 62.51 bcf/d를 기록할 전망임.

- 미국의 '07년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1.3% 증가한 53.78 bcf/d, '08년에는 0.9% 증가한 54.25 bcf/d를 기록할 전망임.
- '07년 멕시코만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현재 총 8.27 bcf 생산 손실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.6% 감소할 전망이며, '08년에는 심해 생산 인프라 개발로 5.4% 증가할 전망임.
- Lower-48 육상가스전의 '07년 생산량은 1.9% 증가하여 멕시코만 생산 감소를 상쇄할 전망이며 '08년 생산량은 0.2% 증가할 전망임.
- '07년 LNG 수입량은 전년보다 260 bcf가 증가할 전망이며, '08년에는 170 bcf가 증가할 전망임.
- 7월 일본 카시와자키-카리와 원전 폐쇄로 인해 발전용 LNG 수요가 증가하여 미국의 LNG 수입은 최근 2개월 동안 감소하였음.

○ 천연가스 가격 전망

- '07년 9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$6.66/1,000cf로 5월부터 연속 4개월간 하락하고 있으며 멕시코만 허리케인의 약화와 높은 재고수준에 따라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.
- 동절기 피크인 '08년 1월경 Henry Hub 현물가격은 $8.65/1,000cf가 될 전망임.
- '07년 및 '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$7.21/1,000cf, $7.86/1,000cf가 될 것으로 예측됨.

○ 전력 수급 전망

- '07년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2.4%, '08년에는 0.7% 증가할 전망임.
- 하계 냉방도일은 정상보다 12%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가정용 전력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.5% 증가하였음.

○ 전력가격 전망

- 가정용 전력가격은 '07년에 2.2% 상승하여 10.6¢/kWh, '08년에는 2.3% 상승한 10.9¢/kWh가 될 것으로 예측됨.

- 산업용 전력가격은 '07년 4.8% 증가한 9.6¢/kWh, '08년 1.7% 증가한 9.7¢/kWh를 기록할 전망임.
-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발전용 연료가격의 상승임.

○ 석탄수급 전망

- 총 석탄소비는 '07년 11억3,460만 short ton, '08년 11억3,94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임.
- '07년 전력수요의 증가로 발전용 석탄수요는 2% 증가한 10억4,680만 short ton을 '08년에는 '0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.
- '07년 석탄생산은 전년대비 2.7% 감소한 11억3150만 short ton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'08년에는 0.2% 증가한 11억3,43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임.

□ 시사점

○ 평균 동절기(10월 1일~3월 31일) 난방용 가격은 '06-'07년 동절기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.

-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대비 $0.8 상승한 $13.14/1,000cf, 난방용 석유는 $0.4 상승한 $2.88/gallon, 프로판 가격은 $0.2 상승한 $2.28/gallon으로 전망함.

○ EIA 10월호 '08년 석유수요 전망치는 9월 예측치 보다 14만 b/d를 줄여 140만 b/d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-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OECD 국가의 석유수요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됨.

(EIA, 2007.10)